

다수학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

위대한 병도자
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
같이 표시하시였다.

『누에치기도 힘있게 내밀
어야 하겠습니다.』

올해 관업부문 일군들과 근
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보
다 큰 전진을 이룩한데 대한 당
의 뜻을 심장으로 담고 활동
한 투쟁은 성과를 창
조하였다. 전국적으로 다수학
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. 그들
속에는 1 t ~ 2.2 kg의 누에
고치를 생산한 사례원고치생산

급함없는 공격정신을 암고

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
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
신년사를 받아온 최영진동무
의 가슴은 크나큰 걱정으로 놓
워졌다.

조국의 무강번영과 임민의 행
복을 위하여 그동물 불면불휴로
고고하고 바쳐지고 더욱 분발하
고 적진전략하여 인민을 위해
많은 일을 헌신한 희생정신부
의 외형은 너무도 수수하였다.

크지 않은 키, 악한 뺨인 체격...

이런 그가 어떻게 되어 사람들을
놀라게 하는 혁신을 창조할
수 있었는가.

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
나은 풍랑을 펼쳤다. 그들이

나에게는 그들이 헌신한 희생정
신을 확신하는 것이다.

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

나에게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

</

